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11월 미 제조 주문 둔화
- WSJ: 실직한 미 사무실 근로자들, 일자리 찾기 더 힘들다
- WSJ: 미국 제조업 활동 지수 위축세 감소

[미국 금융]

- Bloomberg: 2개월 만에 달러 최저...트럼프 관세폭 줄일 것으로 예상
- Bloomberg: 미 국채 14개월 만에 최고치

[미 행정부]

- NYT: US 스틸과 일본 제철, 바이든의 합병 금지 조치에 소송
- FinanceYahoo: 바이든, 미 태평양과 대서양 해양 오일 시추 금지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축소 WP 보도는 오보"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혼잡세, '조용히' 시행된다

[오일]

- WSJ: 2025년 유가 강세로 출발

[인공지능]

- WSJ: 기업은 AI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나
- CNBC: 2025년 AI 규제는 어떻게 변화하나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우버와 리프트, 로보택시 혁명 강화
- TechCrunch: OpenAI, '초지능'에 주목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Reuters: Weak demand for aircraft weighs down US factory orders in November

11월 미 제조 주문 둔화

- 11월 미 제조품 신규 주문이 둔화되었다. 상업용 비행기 수요와 비즈니스 장비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공장 주문이 10월에 0.5% 상향 조정됐으나, 11월에는 0.4% 떨어졌다.
- 연준이 향후 인플레이 관리에 있어 2022년과 2023년에 공격적인 금리 긴축 정책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제조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 발표된 ISM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12월의 경우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Reuters 기사

WSJ: Unemployed Office Workers Are Having a Harder Time Finding New Jobs**실직한 미 사무실 근로자들, 일자리 찾기 더 힘들다**

-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숫자가 2022년 말 이후 50% 이상 증가했다. 현재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는 숫자는 160만명 이상이다.
-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찾은 실업자들은 주로 기술직, 법률직 등 고연봉 화이트칼라 직종이다.
- 일자리가 악화되는 것은 고용이 줄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광범위한 해고는 실업률을 빨리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 기사

WSJ: U.S. Factory Activity Contracts at Slower Rate Amid Uptick in Demand**미국 제조업 활동 지수 위축세 감소**

- 공급 관리 연구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 따르면 12월 구매관리자 제조업 활동 지수가 49.3을 기록했다. 지수가 50 미만이면 해당 분야가 위축된다는 뜻이다. 9개월 연속으로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 다만 11월 구매관리자 제조업 활동 지수 48.4에 비하면 확실히 상승했다. 위축 속도가 더 느려진 것이다. 공급 관리 연구소 제조업 조사 위원회 위원장 Timothy R. Fiore는 수요는 개선 조짐을 보였고 생산은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Dollar Falls Most in Two Months on Report Trump to Limit Tariffs****2개월 만에 달러 최저...트럼프 관세폭 줄일 것으로 예상**

- 오늘 월요일 미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관세 폭이 광범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블룸버그 달러 스팟 지수는 0.9% 하락했다. 지난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가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의 참모들이 관세 적용 폭을 핵심 수입품으로 국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한 이후에 약세로 전환했다.
- 유로는 달러 대비 1% 상승했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Yields Hit 14-Month High Before \$119 Billion of Debt Sales

미 국채 14개월 만에 최고치

- 이번 주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게 상승했다. 1천1백90억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준비하는 불안한 국채 시장 때문이다.
-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023년 11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4.85%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늘 3년물 국채는 580억 규모로 매 될 예정이다.
- 또한 연방 재무부는 이번 주 화요일에 10년물 국채를, 수요일에는 30년물 국채를 매각할 예정이다.
- 현재 시장은 새 행정부의 감세 및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 행정부]

NYT: U.S. Steel and Nippon Sue Biden Over Decision to Block Deal **US 스틸과 일본 제철, 바이든의 합병 금지 조치에 소송**

-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일본 제철의 US 철강 인수 시도는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했었다. US 스틸과 일본 제철은 오늘 월요일, 해당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바이든과 관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검토 과정을 왜곡하고, 잘못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합병 인수를 차단함으로써 철강 근로자들과 미 철강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NYT 기사

FinanceYahoo: Biden Bars Offshore Oil Drilling in US Atlantic and Pacific **바이든, 미 태평양과 대서양 해양 오일 시추 금지**

- 바이든은 미국의 동·서해안, 멕시코만 동부, 그리고 북부 베링해 일부 지역 등 미 연안 6억2천5백만 에이크 이상 해일에서 오일 및 가스 개발을 영구히 금지했다.
- 바이든은 국가 에너지 필요를 충족하는 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강조했다. 해당 조치는 오늘 월요일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취임을 2주 앞둔 트럼프는 취임하면 이 같은 조치를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Trump Team Mulls Narrowing Universal Tariffs, Post Reports **트럼프 "관세 축소 WP 보도는 오보"**

-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모든 국가들에게 시행하되 적용 품목을 주요 수입품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 이 같은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트럼프가 유세 중 제안했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무역 패턴이 왜곡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오보다. 잘못된 기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s Congestion Pricing Off to Quiet Start With Big Test Coming **맨해튼 혼잡세, '조용히' 시행된다**

- 뉴욕시 교통혼잡을 줄이고 낙후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맨해튼 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MTA CEO는 "뉴욕시가 교통체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21세기형 도시가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교통체증이 10%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지난 일요일 자정부터 시작된 통행세는 맨해튼 60 스트리트 남부로 진입하는 경우 피크 시간에 9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MTA는 혼잡세가 '조용히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오일]**WSJ: Oil Starts 2025 Strong on Chinese Optimism, Colder Weather
2025년 유가 강세로 출발**

- 중국 경기 부양책과 추운 날씨로 인한 수요 증가로 2025년 유가가 강세로 시작했다.
- 브렌트유는 이 달 들어 7% 이상 상승한 76.13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9% 이상 상승한 73.59달러를 기록했다.
-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시장이 예상보다 더 긴축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인공지능]**WSJ: How Are Companies Using AI Agents? Here's a Look at Five Early Users of the Bots
기업은 AI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나**

- Salesforce, ServiceNow, Microsoft, Workday 등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작년부터 자사의 AI 에이전트(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를 발표했다.
- AI 에이전트는 직원 채용, 마케팅 콘텐츠 제작, 정보 기술 관리 등 분야에서 복잡한 업무를 대신 수행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준다.
- Johnson & Johnson은 신약 합성에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 분석 및 소프트웨어 회사 Moody's는 서류 검토를 비롯한 시장 연구에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고 있다. EBay는 코드 작성과 마케팅 캠페인 제작에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고 있다.
- 하지만 더 많은 AI 에이전트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시장 조사 및 IT 컨설팅 회사 Gartner은 “2028년에는 AI 에이전트 이용한 비즈니스 결정이 현재 0%에서 최소 15%까지 상승할 것이다. 동시에 2028년 기업 보안 침해 사건의 25%는 AI 에이전트 남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How AI regulation could shake out in 2025
2025년 AI 규제는 어떻게 변화하나**

-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 AI 규제가 전면 개편될 수 있다.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인 일론 머스크는 OpenAI의 공동 설

립자이자 xAI의 CEO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AI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Appian의 CEO인 Calkins는 “머스크는 AI가 인간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따라서 AI 개발이 문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다.”라고 지난 인터뷰에서 말했다.
- 유럽연합은 올해 초 AI 법을 공식 발효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 법의 규제가 너무 엄격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스위스 VPN 업체 Proton의 CEO Andy Yen은 “유럽 연합의 미국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유럽의 관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How Uber and Lyft Are Gearing Up for the Robotaxi Revolution 우버와 리프트, 로보택시 혁명 강화

- 우버와 Lyft는 팬데믹 기간 동안 비용이 많이 드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로보택시 사업을 개편하고 로보택시 운영 플랫폼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 로보택시는 점차 실험을 넘어 시장으로 확산될 준비를 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 YipitData에 따르면 알파벳의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일반 대중에게 자체 앱을 제공했다. 우버와 Lyft는 웨이모를 자사 플랫폼에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 우버는 텍사스 오스틴과 애틀랜타에서, Lyft는 애틀랜타에서 로보택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정비 기술 등 직원 교육에 힘쓰고 있다.

WSJ 기사

TechCrunch: OpenAI is turning its attention to ‘superintelligence’ OpenAI, ‘초지능’에 주목

- OpenAI CEO Sam Altman은 개인 블로그에서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축할 수 있다. AGI를 구축하면 ‘초지능’으로 목표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
- AGI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고도의 자율 시스템이다. Altman은 AI 에이전트가 기업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하지만 AI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우선 AI도 명백히 실수할 수 있으며, 매우 비쌀 수 있다.
- 또한 초지능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초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성 있게 제어하거나 감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연준 금리 인하 속도조절에..."올해 금값 3천달러 안갈듯"
골드만삭스, 올해 금값 전망 낮춰 잡아
"내년 중반 3천달러 넘을 것"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금값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올해 금값이 온스당 3천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작년 11월 예측했으나 이제는 내년 중반에 가서야 3천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올해 말 전망치는 온스당 2천910달러로 수정했다.

전망을 조정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